

‘모범택시2’ 배우 이제훈 “목소리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모범택시’ 시즌1 성공 후 2년 여 만에 시즌2 선보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 대신해 ‘복수하는 이야기’

배우 이제훈(39)은 선택과 집중을 했다. SBS TV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1(2021) 성공 후 2년 여 만에 시즌2를 선보이며 걱정이 앞섰다. 시즌1은 무겁고 어두운 측면이 있었다면, 시즌2는 ‘좀 더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 어보자’고 마음 먹었다. 2회씩 에피소드로 구성했고, 새로운 부캐(부캐릭터)로 재미를 더 했다. 물론 부캐로 계속 채워나가다 보니 분량이 줄고 소모되는 느낌도 컸다. “에피소드마다 부캐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내 말전이 다 드러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시즌1에서) 묵직한 축을 담당한 캐릭터들이 빠지다 보니 부담됐다. 시즌1 때는 ‘과연 사적 복수를 하는 게 맞는건가?’를 두고 내적 갈등과 가치관 혼돈이 와 계속 부딪혔다. 시즌2에선 그런 부분을 훌훌 털어버리고, 사적 복수 키워드보다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혼내주자’고 마음 먹고 달려들었다. 시즌1은 여러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였다면, 시즌2는 장점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했다.”

이 드라마는 무지개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하는 이야기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시즌2는 1회 12.1%(닐스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16회 21%로 막을 내렸다. 시즌1 최고 시청률(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사적 복수는 판타지에 가까웠지만,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를 버무려 몰입도를 높였다.

이제훈은 “사회 현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기가 됐다. 이 드라마 때문인지 몰라도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사건·사고가 반복될 때 답답하고 부끄럽

기도 하다.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큐처럼 개성적인 이야기를 다룬 건 아니지만, 판타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주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기를 연기하며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 “스스로 배우라는 직업에 사명 의식을 갖기 전에도 불의를 보면 직접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누군가 길에서 쓰러기를 버리거나, 무단횡단 할 때 ‘그러지 마라’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면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발언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솔직히 내가 뭐가 이야기를 해 배우 직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면 안 된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제훈은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시즌2는 신혼부부 상대 부동산 청약 사기, 사이버 종교, 클럽 ‘블랙선’ 에피소드 등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5~6회에서 부동산 불법 브로커 ‘강필승’(김도윤)이 아파트 청약 가점을 목적으로 임업을 알선하고 아이들을 학대해 분노를 샀다. “조카가 있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며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깊은 상처를 줘 진짜 화가 났다”고 돌아왔다.

강필승을 응징하기 위해 무지개운수 해커 ‘안고은’(표예진)과 신혼부부로 위장하기도 했다. “부캐를 연기할 때 ‘더욱 더 잘 숙이고 싶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면서 “극본에는 ‘인교부부’라고만 표현 돼 있었는데, 그 외

는 내가 좀 더 만들어서 상상했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부부를 표현하고 싶었다. 여태까지 하지 못한 로코, 멜로 욕망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 발산했다”며 좋아라했다. “본캐는 무채색이고 어둡지 않았느냐. 부캐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줘 대비되길 바랐다”며 “시즌1부터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 제작진이 다행히 수렴해줬다”고 덧붙였다.

사이비 종교 에피소드에서 선보인 무당 연기도 인상적이었다. 부캐 중 ‘범사도기’가 가장 어려웠으며 “굿하는 장면을 찍을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다.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이틀간 앉아 누웠다. 보통 액션신적인면 삭신이 추시는 정도였는데, 이 때는 내 기와 에너지를 다 가져간 것 같았다.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농부도기는 재미있었지만, ‘과연 맞는건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며 “충청도를 사투리를 써본 적이 없었다. 순박하고 구수한 청년이 어떻게 비취질까 걱정했는데, 귀엽게 봐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블랙선 에피소드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주축이 된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연상케 했다. “사실 근래 일어난 사건인데, 다들만한 의미가 충분했고 의무감도 들었다. 모범택시 세계관 안에서 잘 표현하고 싶었다. 단순히 1~2회에 끝내지 않고 4회에 걸쳐서 전달하지 않았느냐. 20대 젊은 에너지 발산하는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제훈은 모범택시2에 모든 걸 걸었다. “내가 무너지면 ‘작품이 비틀 거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잘된 작품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기대와 호응이 있을 테고, 다들 지켜보니 ‘더더욱 잘 해내고 보여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다. 나의 에너지를 불려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스태프, 배우들과 ‘으쌰으쌰’ 했고 나를 다 불태웠다”고 회상했다.

시즌3 가능성도 높게 봤다. 앞으로도 모범택시 시리즈가 이어지고, 무지개운수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보여지길 바랐다. “이런 포맷을 계속 가져가고, 다양한 인물이 나와서 드라마를 활기차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마지막회에서 김소연 선배가 모범택시 1대 기사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난 몇호 기사일까?’ 싶었고, ‘17호 정도로 하자’고 생각했다. 다음 시즌에서 2~16호 기사님이 나오면 재미있지 않을까. 배신해서 나간 선배들도 있을 테고 다채로운 상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제훈은 2006년 단편영화 ‘진실 리트머스’로 데뷔해 17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영화 ‘파수꾼’·‘고지전’(2011)을 비롯해 ‘건축학개론’(2012) ‘박열’(2017), ‘사냥의 시간’(2020), 드라마 ‘비밀의 문’(2014) ‘시그널’(2016) 등

으로 주목 받았다. 올해 ‘탈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기를 정말 좋아해 결혼 계획은 없지 않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인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찾는 생각”이라며 “더더욱 열심히 하고 싶다. 생각이 많이 든다. 시기보다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스캔들 없었나? 올해는 또 모르는 것”이라고 웃었다.

“여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니 이제 천천히 해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고 싶다. 최소 10년은 미친 듯이 달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지금은 모범택시 타이틀로써 선봉자 역할을 했지만, 시리즈가 이어져 도기가 늙고 서포트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배우로서 멋지게 잘 하고 싶다. 매 작품마다 어렵고 힘든 미션이지만, 계속 신선했으면 좋겠다. ‘이제훈 나오면 똑같겠지’라고 하면 가장 기쁠 것 같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다.”

광양제철소 포스코 창립 55주년 기념 ‘박상민 콘서트’ 개최



광양제철소가 21일 광양시 금호동 백운아트홀에서

내일 광양시 금호동 백운아트홀에서 진행

홀에서 ‘포스코 창립 55주년 기념콘서트’를 개최한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시민과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1992년 백운아트홀을 개관해 품격 높은 음악회,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영화를 무료로 선보여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웃들에게 선사해왔던 양질의 문화 콘텐츠는 2020년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올해부터 재개됐다.

약 800석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가수 중 한명인 ‘박상민’을 초대해 단독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수 박상민은 주변 이웃들에게 기부한 금액이 4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는 광양제철소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번 콘서트가 더욱 뜻깊다.

박상민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락, 컨트리 계열의 음악을 콘서트에서 선보이며 광양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해바라기 △무기여 잘 있거라 △애원 △지중해 등과 같은 다양한 히트곡들을 부를 예정이다.

신청자들에게 한해 추첨을 통해 1인 2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으로, 선정된 당첨자들에게는 18일 10시 이후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콘서트장에는 행사 당일 19시부터 백운아트홀 입구에서 초대권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으며, 중학생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백운아트홀을 2019년 리모델링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트와이스·투바투, ‘빌보드200’ 차트인 계속



지진을 비롯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외에도 K팝 그룹의 빌보드 내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가 22일 자 ‘빌보드 200’에서 72위를 차지했다. 5주 연속 톱 100위 안에 들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지난 1월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은 이번 주 ‘빌보드 200’ 차트에서 98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이 앨범은 지난 2월 11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한 이래 11주 연속 차트인했다.

신인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지난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22일 자 ‘핫 100’에서 60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85위에서 무려 25계단 상승하며 4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글로벌 200’에선 지진 외에 K팝 걸그룹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솔로 싱글 ‘미(ME)’ 타이틀곡 ‘꽃(FLOWER)’은 ‘글로벌 200’에서 1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셋다운’은 189위를 차지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는 ‘글로벌 200’에서도 상승세로 지난 주보다 9계단 올라 13위

에 자리했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월 발매한 싱글 ‘OMG’의 타이틀곡 ‘OMG’는 36위다. ‘OMG’의 선공개곡 ‘디토’는 66위다. 이들의 데뷔곡 중 하나인 ‘하이프 보이’는 155위다.

대개 걸그룹 ‘아이브(IVE)’의 정규 1집 ‘아이브 아이브’ 타이틀곡 ‘아이 엠 I’ 52위로 해당 차트에 데뷔했다. ‘아이브 아이브’ 선공개곡 ‘키치(Kitsch)’가 14계단 올라 76위다.

특히 이번 주 빌보드 내 세부차트에서 싱어송라이터 아이유(IU·이지은)가 ‘이머징 아티스트’에서 첫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솔로 앨범 ‘디-데이’ 수록곡으로 지난 7일 선공개한 ‘사람 Pt.2’(feat. 아이유)를 피쳐링한 덕분이다. ‘사람 Pt.2’는 이번 주 빌보드 내 ‘디지털 송 세일즈’,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랩 디지털 송 세일즈’에 각각 1위로 직행했다. ‘글로벌 200’에서는 24위를 차지했다.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는 ‘핫 100’과 ‘빌보드 200’을 포함한 여러 빌보드 차트에서 아티스트 활동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 주요 차트 중 하나인 아티스트 100과 동일한 공식을 사용한다. 다만 그 주 ‘핫 100’ 또는 ‘빌보드 200’에서 상위 25위 안에 진입한 아티스트 그리고 세부 장르 순위에서 두 부문 10위 안에 진입한 아티스트는 제외된다.

아이유는 2020년 5월 슈가가 피쳐링한 ‘에잇(Eight)’을 발표했을 때 ‘이머징 아티스트’ 36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당시 이 곡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윌렌의 새 앨범 ‘원 싱 앳 어 타임(One Thing At A Time)’이 6주 연속 ‘빌보드 200’ 정상에 차지했다. 윌렌은 ‘원 싱 앳 어 타임’ 타이틀곡 ‘라스트 나이트’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핫100’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미국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의 ‘플라워(Flowers)’가 이번 주 ‘글로벌 200’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해당 차트 총 12주간 1위다.

곽준빈 “기존 프로그램서 볼 수 없는 사고생”...‘부산촌놈 in 시드니’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첫 방송에 앞서 이시연과 곽준빈(곽두브)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오는 23일 오후 10시 50분에 공개되는 ‘부산촌놈 in 시드니’(연출 류호진, 윤인회)는 부산 출신 4인방 허성태, 이시연, 안보현, 곽준빈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즐기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재미와 리얼리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일념을 전한 허성태, 안보현의 무용담에 이어 이번에는 이시연과 곽준빈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먼저 이시연과 곽준빈은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프로그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이시연은 “부산 출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시드니에 간다는 것이 좋았다”며 “부산에서 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곽준빈은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고 특히 호주 여행을 해보고 싶었다”며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둘은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해외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만큼 이번 여정에서 느끼는 바도 남달랐다며 이시연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털어놨다. 덧붙여 “일을 해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깨달은 바가 많다”고 전했다.

곽준빈은 “개인 방송만 하다가 오랜만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일해보니 처음엔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



다’는 소회를 밝혔다.